

종합·해설

송재구 문화수도조성위원장 해촉 파문

민간 위원들 동반 사퇴땐 조성위 장기 표류 불가피

13명 모두 송위원장 추천 선임 종합계획 수립도 늦어질 수도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장 직에서 전격 해촉된 송재구씨가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해촉 사유 공개' 등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섭에 따라 향후 정부의 대응과 송씨의 추천에 의해 선임된 민간 조성위원들의 거취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송위원장 해촉에 따른 상황을 조기에 진화시키기 위해서 급주 중 조성위원장 선임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진행시킬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관건은 조성위 민간위원들의 거취. 송위원장 해촉에 따라 송씨가 추천한 민간 조성위원(13명)의 상당수가 동반 사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문화도시 사업의 최고 심의기구인 조성위의 장기표류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광주지역 출신 민간 조성위원 A씨는 "송 위원장이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는데 해촉돼 아쉽다"면서 "송 위원장의 추천으로 선임된 조성위원으로서 동반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동반 사퇴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민간 조성위원은 총 13명으로 모두 송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선임됐으며, 광주지역 인사는 7명이다. 광주지역 조성위원들은 그동안 수차례의 협의 등을 통해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함께 사퇴할 가능성이 높다.

조성위원들의 일부 또는 전부가 사퇴할 경우 조성위는 위원장 선임 직후, 조성위원 선임에 또 다시 들어야 하기 때문에 수개월간 표류할 수밖에 없다. 송 위원장의 해촉은 종합계획 수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급주 내에 조성위원장 선임을 마치고, 종합계획을 다음 달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유구승 문화전당 설계자가 광주지역 설명회에서 랜드마크 강화를 요구하는 의견을 수렴한 만큼 기존 공연장에 랜드마크를 보완하거나 별도의 랜드마크 보완책을 만들어 광주시와 협의를 마칠 경우, 5월 내에 종합계획 수립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종합계획은 문광부와 광주시의 협력이 끝나더라도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현 조성위원 상당수가 조성사업과 관련해 문광부 보다는 송 위원장의 구상과 가까운 편이어서 난관이 예상된다. 더욱이 조성위원 중 일부라도 사퇴할 경우 추가 선임에 따른 기간 등으로 인해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채희정기자 chae@kwangju.co.kr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장직에서 해촉된 송재구씨가 23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촉에 따른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내영주기자 mjna@kwangju.co.kr

후임 누가 거론되나 조영택·허성관·황지우씨 3명 유력

송재구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장의 해촉에 따라 후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송 위원장 해촉에 따른 후임 인선을 급주 안에 마치고, 2개월 동안 공석으로 있던 기획단 본부장은 신임 조성위원장과 협의를 통해 선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조성위원장 후보로는 조영택 전 국무조정실장과 허성관 광주과학기술원장(전 행정부

장관), 황지우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시인) 등 3명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조 전 실장은 청와대의 제의를 고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월부터 공석인 기획단 본부장은 신임 조성위원장 위촉 이후, 5월 초에 선임될 것으로 보인다. 본부장에는 김성운 지역문화교육진흥재단 상임이사과 김하림 조선대 교수 중 한 명이 선임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 남구 1선거구 3 파전 나주 2선거구 2강 구도

■ 광주·전남 광역·기초의원 재보선 판세

'풀뿌리 일꾼' 모두 8명 새로 뽑아 기초의원 민주-우리당 조직 싸움

4·25 재·보선을 하루 앞두고 정치권과 유권자들의 관심은 온통 무안·신안 등 전국 3곳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쏠려 있지만 '풀뿌리 일꾼'인 광역·기초의원 후보들도 치열한 경쟁 속에 막바지 표심잡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2개 광역의원 선거구와 5개 기초의원 선거구가 이번 재·보선 대상에 포함돼 모두 8명의 지방의원을 새로 뽑게 된다.

◇광역의원=광주 남구 제1선거구는 열린우리당 이창호 후보와 무소속의 강도석, 오기주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지역이다. 강 후보가 12차례 선거에 나서면서 높아진 지지도로 바탕으로 선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나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일부 조직을 흡수한 이 후보와 황일봉 남구청장과 민주당의 전변적 지원을 받고 있는 오 후보가 양자 대결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투표율이 낮아지면 조직이 선거 승패를 좌우한다는 것이 선거 전문가들의 예상이기 때문이다.

나주 제2선거구 전남도의원 재선거에서는 당 차원의 총력 지원을 받고 있는 민주당 전준호 후보와 나주시의회 의장을 지낸 무소속 나종석 후보가 2강 구도를 형성한 가운데 무소속 박상희 후보가 맹추격하고 있다.

는 계 현지 정가의 분석이다. 제 7개도의원을 지낸 강상철 후보와 당 지도부 및 대권주자들이 힘을 보태 한나라당 나모란 후보가 얼마나 많은 득표를 할 것인가도 관심거리다.

◇기초의원=두 명의 구의원을 뽑는 광주시 서구 가선거구의 경우 민주당 후보(오향섭, 장재성) 중 한 명과 민주노동당 김대우 후보가 앞서고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 김애정 후보의 약진도 두드러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구 가 선거구와 남구 가 선거구는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조직전이 펼쳐질 것이라 예상이 지배적이다.

6명의 후보가 나선 여수 다 선거구의 경우 민주당 유우준 후보와 무소속 박영석 후보가 비교적 감세를 보여 여수 가내내 나머지 후보들도 저마다 승리를 장담하며 막바지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순천 마 선거구는 열린우리당 박승수, 민주당 유혜숙, 무소속 정달영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여수 다선거구와 순천 마선거구에 출마한 한나라당 후보들의 득표율도 연달 대선과 맞물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나주=정현진기자 chjung@

광주·전남 4·25 재·보궐 선거 지방의원 입후보자

◇광역의원

지역구	이름	정당	나이	학력	경력
광주 남구 제1선거구(남원, 사직, 월산, 월산4, 월산5, 백운1, 백운2, 주월1, 주월2동)	이창호	한	30	전남대 경제학과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강도석	무	52	호남대 대학원	남구의회 의장
	오기주	무	58	조선대 교육대학원 재학	남구의회 사무국장
나주 제2선거구(세지면, 다도면, 봉황면, 영강동, 영산동, 이창동, 용곡면, 반남면, 풍신면, 동강면)	나모란	한	48	방송통신대 2년 휴학	광주고검 근무
	강상철	무	59	미기재	전남도의원
	나종석	무	57	광주제일상업전문학교	나주시의회 의장
	박상희	무	58	광주대 경상대학원	영산포고 총동문회장

◇기초의원

지역구	이름	정당	나이	학력	경력
광주 서구 가선거구(안림, 사직, 월산, 백운1동, 화정2동)	정명조	한	43	호남대 무역학과	서림목재 대표
	김애정	우	37	광주대 경영학부 재학	우리당 광주시장 당무기획국장
	오향섭	민	63	미기재	민주당 광주시장 윤리위원장
	장재성	민	43	광주대 중퇴	민주당 서갑 연천회장
	김대우	노	33	목포대 경영학과	민노동 광주시구위원회 청년위원장
광주 남구 가선거구(남원, 사직, 월산, 백운1동)	김대욱	무	44	광주농고	이철환 변호사 사무실 근무
	박찬국	무	58	광주상고	광주 서구 재향군인회 회장
	정진백	우	48	전남대 행정대학원	광주YMCA 청소년위원회 부위원장
여수 다선거구(한려동, 광림동, 문수동)	김복일	민	43	경고대 대학원 박사	광주금동 청년회소 회장
	고경애	우	47	광주대 디지털 경영학과	여성정치연맹 서구지회장
	허방수	무	41	조선대 대학원	홍익동 임차인대표회의 회장
	남광우	우	57	조선대 정책대학원	남구의회 2대 의장
	이병조	민	34	광주대 디자인학부 재학	민주당 광주시장 부위원장
순천 마선거구(매곡동, 삼산동)	김재곤	무	58	미기재	백운1동 주민자치위원
	안재신	한	52	한양대 1년 재학	에이즈퇴치연맹 운영위원
	김성식	우	56	여수한양대 토목학과	여수시의원
	유우준	민	51	전남대 행정학과 재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순종	무	43	여수수산전문대	여수배드민턴회 부회장
순천 마선거구(매곡동, 삼산동)	김양근	우	48	여수상고	현대자동차영수창
	박영석	무	54	조선대 학대	여수시의원 의장
	정미모	한	45	경남공업전문대학	한민족공동체 상임이사
	박승수	우	44	순천대 경영행정대학원	매산고총동창회 부회장
순천 마선거구(매곡동, 삼산동)	유혜숙	민	45	한남대 대학원	순천청담대 겸임교수
	정달영	무	40	순천대 농기계학과	순천시의원

■ 4·25 재보선 현황

○한나라당 강제섭 대표는 23일 오후 신안과 무안을 잇따라 방문, 한나라당 강성만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강 대표는 신안군 지도를 재래시장을 방문해 상가와 길거리를 돌며 "신안 압해도와 암태면을 잇는 새천년 대교 건설과 호남발전을 위해 한나라당이 앞장서겠다"면서 "한나라당은 지난 날을 반성하고 신안, 무안 사람들에게 다가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덕룡 의원은 "전남지역에서 여론 조사를 해보면 한나라당의 집권 가능성을 꺾고 있는데 지역을 대표할 국회의원 없이 되겠느냐"며 강

강재섭 대표 "한나라당 지난날 반성" 이희호 여사 사흘째 아들 지지 호소

후보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이날 연설회에는 강 대표를 비롯 유권자 최고위원, 김덕룡·이종구의원, 유기근 대변인, 박재순 전남도당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23일 이낙연 중앙선거대책위원장장과 최기안·채일병 의원, 김지연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명환 전 과학기술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안군 지도에서 거리유세를 갖고 막판 승세 굳히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지난 21일 내려온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도 이날 유세에 공식 연설원으로 참석, 지역 유민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차남 흥업씨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개그맨 엄웅수씨, 가수 현미씨, 텔런트 민욱씨도 자원봉사자로 함께 했다.

민주당은 24일에는 박상천 대표와 김효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무안을 5일 장터에 총집결, 마지막 집중 유세를 갖는다.

○광주시 남구 제1선거구 광역의

원에 출마한 열린우리당 이창호 후보는 23일 김성문 민주당 광주시장 전 사무처장과 민주당 출신인 서용·전봉식 전 남구의원 등 민주당의 일부 전·현직 당직자 및 구의원들이 지지 선언을 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남구의 발전을 위해 많은 정치인이 뜻을 모아왔다"며 상생과 화합의 정치를 다짐했다.

하지만 무소속의 오기주 후보 측은 "공천에서 서운함을 느끼고 있는 극히 일부 당원만이 후보를 돕고 있고 대부분의 민주당 조직은 오 후보를 돕고 있어 지지선언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4월 25일 투표로 아침을 시작 하세요

- 무안·신안국회의원보궐선거
- 전라남도의원재선거 (나주시제2선거구) : 세지면, 왕곡면, 반남면, 공산면, 동강면, 다도면, 봉황면, 영강동, 영산동, 이창동
- 여수시의원재선거 (다선거구) : 한려동, 광림동, 문수동
- 순천시의원재선거 (마선거구) : 매곡동, 삼산동

- 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
- 19시부터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1988년 4월 26일 이전 출생자)
- 정치포탈(<http://epol.nec.go.kr>)에서 후보자 정보도 확인하고 이벤트도 참여하세요!

투표시간: 오전 6시 ~ 오후 8시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